

미 캘리포니아 해변서 2천여 명 침례, 예수 혁명

파이어츠 코브 해변서 지저스 레볼루션 침례식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4 하베스트 크루세이드'(Harvest Crusade)에 수천 명이 참석한 후, 해변에서 약 2천 명이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스(Harvest Ministries)는 코로나 델 마르에 위치한 파이어츠 코브 해변에서 두 번째 연례 '예수 혁명 침례식'(Jesus Revolution Baptism)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렉 로리 목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이 주관했으며, 약 70명의 목회자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감독 하에 2천여 명이 침례를 받았다.

침례식은 7월 20일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2024 하베스트 크루세이드가 열린 지 일주일 후에

진행됐다. 하베스트에 따르면, 당시 이 경기장에는 5천 명 이상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1만 2천여 건의 신앙고백이 이뤄졌다.

로리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대됐다”며 “모든 참가자들은 침례의 중요성과 그것이 나타내는 신앙의 의미를 안내받았다”고 했다.

파이어츠 코브 해변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초신자를 위한 성경'을 제공받았고, 협력 교회 중 한 곳에 초청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로리는 “이들은 하베스트의 요한복음 디지털 스테디 가이드에 등록돼, 하베스트 제자 훈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이 커뮤니티는 무료 온라인 강좌, 소그룹 및 신앙 성장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다.

2023년 7월, 하베스트가 주최한 '예수 혁명 파이어츠 코브 해변 침례



7월 27일 파이어츠 코브 해변에서 '예수 혁명 세례식'(Jesus Revolution Baptism)을 진행하기 일주일 전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하베스트 크루세이드가 열렸다. ©harvest.org

식'에서는 약 4,500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는 로리 목사의 손녀 스텔라도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곳은 예수 혁명으로 알려진 마지막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장소”라며 “파이어츠 코브 해변은 50년 전 그 운동 중 대규모 침례가 이루어진 바로 그 곳”이라고 덧붙였다.

로리는 1970년대의 부흥 운동을 다룬 2023년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해변에서 침례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남가주 교회들, 인재 양성 위한 장학금 수여

기쁜우리교회, 나성영락교회 만남의교회, 충현선교교회

지난 봄학기 장학생을 모집한 남가주의 교회들은 이번 여름 기간 장학생을 선발했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4일(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일반장학금 Daroo Lee외 6명, 목회자 선교사 자녀 장학금 Esther Cha 외 11명, 신학생 장학금 Shin-sung Han 외 4명에게 각각 2천 달러씩 총 4만 8천 달러, 스페니쉬 커뮤니티 장학금 Colmenares, Mario 외



기쁜우리교회가 8월 4일 주일예배 시간에 총 28명에 6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기쁜우리교회

3명에게 총 7천 달러, 멕시코 HBU 체 28명에게 6만 달러를 수여했다. 신학교에 5천 달러를 수여해, 전 주디 한 기자 → 관련기사 3편.

세대 통합 목회로 세대 간 막힌 담 허문다!

본지 주최, 남가주 교계 후원으로 세대통합목회 목회자 세미나가 8월 2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에서 열린다.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 가문을 이루자'(신명기 6:2)는 주제를 이룬 이번 세미나에는 김경윤 총장(광신대학교)과 서인석 목사(목포 창조교회)가 강사로 서 세 세대가 어떻게 동일한 신앙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김경윤 총장은 목포 창조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도입해 조부모-부모-자녀로 신앙이 자

연스럽게 전수될 수 있는 교회 모델을 제시하며, 세대 통합 운동에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현재 창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인석 목사는 '3대 동일 신앙 전수'를 비전으로 삼아 세대 통합 예배 뿐 아니라 세대 통합 성경대회, 세대 통합 찬양대회, 세대 통합 수련회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 세미나는 무료이며 등록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날짜: 8월 20일(화) 문의: 213-434-1170 → 관련기사 8편.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OPC VBS,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다이빙!

베버리 힐스 록스베리공원 VBS 진행, 120여 명 참가 게임, 보물찾기 등 다양한 활동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 경험



올림픽장로교회(OPC)는 8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교회 본당과 록스베리 파에서 VBS를 진행했다. ©OPC.

엘이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올림픽장로교회(Olympic Presbyterian Church, OPC, 담임 이수호 목사)는 8월 2일(금)부터 4일(주일)까지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장로교회 본당과 록스베리 공원(The Roxbury Park)에서 “러브 다이빙-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Love Dive-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을 주제로 VBS를 진행했다.

신나는 찬양과 말씀, 예배를 비롯해 썬케이크 만들기, 기도일지 만들기, 공동체 게임, 보물찾기, 골든벨, BBQ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음세대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진행되었다.

올림픽장로교회 차세대(OPC Next Generation) 부서는 주일에는 어린이와 유스 그룹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는 연령 별 소그룹을 진행한다.

금요일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며, 휴일과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

하며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One Generation to All Generation)” 를 추구하는 이 교회는 매월 마지

막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세대 간 단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쓴다. 또한 차세대를 위한 중보기도팀과 간식팀을 운영해 영육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올림픽장로교회는, “다음세대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나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 기성세대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다음세대에게 흘러갈 수 없다. 기성세대가 먼저 바로 서지 않는한 다음세대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

올림픽장로교회 차세대는 주일 오전 11시와 금요일 오후 7시에 올림픽장로교회 비전홀에서 예배와 모임을 가진다. 조셉 리기자

문의: Kids 담당 송한미 전도사 213-285-7771, Youth Pastor Colin 323-904-6122

교회웹사이트: olympicchurch.com/

‘개신교 관점에서 본 레퀴엠’ 컨퍼런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의 윤임상 교수가 1일 오전 월드미션대에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중심으로’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오는 18일 오후 7시에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라크마(LAKMA)가 주최하는 ‘Friendship & Harmony’ 정기 연주회에서 윤 목사는 브람스의 레퀴엠을 지휘할 예정이다.



윤임상 교수가 개신교 관점에서 바라본 레퀴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기독교일보

레퀴엠은 가톨릭교회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때에 하나님께 죽은 이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청하며 연주하는 전례 음악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을 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음악을 통해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내면을 관찰하며 삶을 정돈해줄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다”라고 했다.

이어 “레퀴엠은 죽은 자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음악 예배 형식의 미사이지만, 브람스의 레퀴엠은 전통적인 관념을 깨고 산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진지

하게 된다”면서 “브람스는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을 던졌지만,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역설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람스는 루터란 신자로서 인간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고난 속에서도 참된 복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한다”며 “브람스는 십자가 신학을 주 골격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나타나는 역설의 축복을 중심으로 가사를 전개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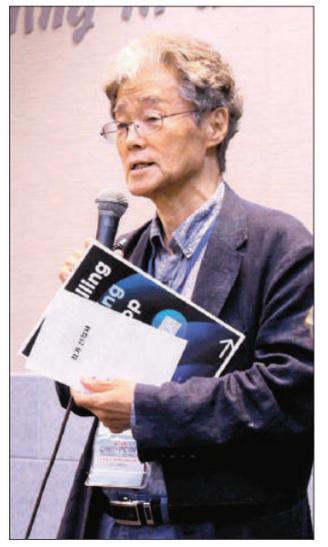
레퀴엠은 개신교 교회 음악에 적합한 장르인가라는 물음에,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리고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증명해 준 위대한 작곡”이라며 “전도자 무디는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머잖아 어느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생생히 살아있게 될 것이요’ 우리도 이 순례자의 길을 지내는 여정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알고 누리며, 찬양으로 고백하다 인생의 끝자락에 이 믿음의 거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월드미션 대학교 설교 워크샵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설교 워크샵을 9월 9일(월)부터 10월 28일(월)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이번 설교 워크샵은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며, 설교 시연의 방식으로 각 조별로 원고 발표를 하게 되며, 각 동료 설교자들의 상호 평가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된다.

정재현 교수(월드미션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설교는 말씀에서 시작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보니 설교를 듣는 청중은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서 설교가 식상하게 되고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설교는 청중들이 처한 ‘삶의 자리’ 즉,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에 부합되게 삶의 물음을 다듬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의 지혜를 성서 말씀에서 구함으로써 깨달음을 거쳐 결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워크샵을 여는 취지를 전했다. 주디 한 기자
전체 8주 과정: 9/9(월)-10/28(월)
매주 월요일 10:00~11:30
등록: QR 코드 스캔
문의: 213-388-1000 (정



월드미션대학은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온라인 설교 워크샵을 주최한다. 사진은 정재현 교수. ©기독교일보

재현 교수: liberame@wmu.edu).
1. 월드미션대학교의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강의를 미리 시청한다.
2.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줌 213 388 1000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만난다.
3. 매 강의에 관련하여 지정된 성서 구절을 근거로 5-10분 정도 길이의 설교 원고를 미리 작성하고 조별로 분배하여 설교 시연의 방식으로 매주 순차적으로 원고를 발표한다. 동료 설교자들의 상호 평가와 조언.
5. 설교학 전문가의 보완과 총평으로 마무리한다.





BewhY Concert

in LA with Loving Worship

Tickets —
axs.com

Ticket 문의 —
213-357-1565
\$120 | \$100 | \$80

협력 기관:
기독교일보
미주 중앙일보
미주 CBS방송

협력 교회:
LA 온누리교회
온혜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충현선교교회
베델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7PM — Saturday
Aug 17 2024

The Novo Theater
800W Olympic Blvd
Los Angeles 90015

협력 교회:
LA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새생명비전교회
LA 동부 사랑의 교회

MOVEMENT IX

남가주 교회 장학금 통해 다음 세대 격려

나성영락교회 70명 만남의교회 15명 충현선교교회 21명 장학금 수여

나성영락교회 2024 장학금 수여식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8월 4일(주일) 각 예배 시간(1-3부)에 교회 본당에서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계영 목사 기념 장학금 1명, 안나 장학금 1명, 신학생 장학금 7명, 일반 대학생 장학금 8명, 일반 학부 장학금 50명, 그린 장학금 3명, 총 70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1982년부터 매년 장학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2024년까지 42년 간 약 6,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만남의교회 2024 장학금 수여식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만남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 교회는 창립 41 주년기념주일 이던 7월 21일 주일 예배 시간에 제17회 만장 장학금을 수여식을 진행해 장학생 15명에게 각 \$1,000씩 수여했다.

‘만장’은 ‘매우 높음’ 또는 ‘대단함’이란 뜻의 만장(萬丈), 또는 ‘온갖 장애’란 의미의 만장(萬障)도 된다. 즉,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인 동시에,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해 수여한다는 의미에서 <만장 장학금>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는 교회 창립 41주년이었던 지난 7월 21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장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만남의교회

이라고 부른다. 또한, ‘작은 것 모아 큰 것 만든다’와 ‘여러 사람이 모아 많은 것을 만든다’를 기본정신으로 삼아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돈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현선교교회 제25기 장학금 수여식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는 지난 달 21일(주일) 3부예배 시간에 제25기 충현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제25기 장학금 수혜자는 21명으로, 정상우 목사 장학금 박찬희(Calvin University) 외 1명, 박태용 장로 장학금 이준민(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외 3명, 일반 장학금 정재하(Pensacola Christian College) 외 14명에게 수여되었다.

정상우 목사 장학금은 선교사 자녀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박태용 장로 장학금은 초급대학 재학 이상의 학생을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일반 장학금은 기독교 신앙이 돈독하며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이다.

충현 장학회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제1기부터 25기까지 총 348명의 학생들에게 총 \$354,000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구나힐스교회 장학금 수여식 11일

7월 13일 라구나힐스교회(담임 림학춘 목사)는 장학 대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조국 광복 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인 8월 11일(주일) 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2012년 출범한 라구나힐스 장학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와 선교지의 학생들을 년 1회 선발하여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 후원하고 있다. 주최측은, “장학사업은 백년을 내다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남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2024 장학금 수여식이 7월 21일 주일 3부예배 시간에 진행됐다. 충현선교교회는 2000년부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현선교교회



2012년 장학위원회를 출범해 매년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 후원하고 있는 라구나힐스교회(담임 림학춘 목사)는 7월 13일 장학대상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라구나힐스교회

기는 미래선교”라고 장학회 설립의 의미를 전했다.

세계선교교회 장학금 수여식 11일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8월 11일(주일) 오전 11시 교회본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한다.

세계선교교회 장학회는 남가주

거주자 및 남가주 소재의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또는 입학 예정인 학생 가운데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성적 우수자, 신학생, 목회자(전도사) 자녀 및 선교사 등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회는 매년 가을 바자회로 기금을 모금하여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주디 한 기자

복음으로 랩하는 비와이 공연 17일 오후 7시

여기 랩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랩퍼가 있다. ‘몸에 메트로놈이 내장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놀랍도록 빠른 랩을 구사하면서도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 ‘귀에 들리는’ 랩을 들려준다. 그러면서도 순간의 플로우 변화를 타며 자유자재로 비트를 넘나든다.

그의 랩을 들은 사람들은 ‘귀에 제대로 때려박는 랩’, ‘우리 나라 랩의 모든 것을 담은 곡 같다’며 놀라워 한다. 그러나 그의 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랩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 구절, 자신의 신앙을 담아 랩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그의 실력 때문에 믿지 않는 일반 대

중들조차 그의 복음의 색채가 분명한 랩을 들으면서도 호응한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남가주 청년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제이아스와 연합콘서트 <예수아>(Yeshua)를 기획했던 러빙워십(Loving Worship, 대표 조셉 리 목사)이 비와이 콘서트를 주최하며 타겟으로 삼은 것은 비기독교인이다.

“합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비와이’(BewhY)라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리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라는 러빙워십의 판단이다.

이에 러빙워십은 8월 17일 LA다

운타운 노보 극장(THE NOVO)에서 비와이 콘서트를 기획했다. 콘서트의 주제는 Movement IX’(예수 운동)이며, 비와이의 단독 콘서트로 진행된다. 음향과 조명은 라라랜드 월드투어 쇼를 담당했던 Troy Choi (최경태)감독이 맡는다.

비와이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자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이번에 러빙워십과 손을 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비와이 콘서트: 8/17(토) 7pm
LA 노보 극장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티켓구입:www.axs.com/events/591645



세대통합목회 목회자세미나

주제: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가문을 이루자 (신명기 6장 2절)



강사: 김경운 총장
(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교육국장(개혁)
(전)필리핀 선교사
(전)GMS 파송이사
(전)목포제일교회 노회장

김경운 총장 집회

- 8월 21일(수)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8월 25일(주일) 오전 11:45
주은혜교회 (담임 최호년 목사)
808 Foothill Blvd,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세미나 제목

- 1강 주님이 원하시는 삼대동일신앙 - 김경운 총장
- 2강 삼대동일 신앙을 세우는 방법 - 김경운 총장
- 3강 삼대동일 신앙의 실재 - 서인석 목사

- 날 짜 : 2024년 8월 20일(화) 오전 10:00~2:00
- 장 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 등 록 : QR 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 등 록비 : 무료
- 문 의 : 기독일보 213-434-1170
- 후원단체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 여성목사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 월드쉐어 USA, 남가주총신동문회,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윌드미션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록신청



강사: 서인석 목사
철학박사(Ph. D.)
(전)광주제일교회 노회장 역임
(현) 창조교회 담임목사
(현) 바이블동서남북 (대표 윤대명목사) 한국 부원장
(현) 광신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전임)
(현) CTS 방송 자문위원(목포)

서인석 목사 집회

- LA 소망선교교회(김영호 목사)
3511 W Olympic Blvd #3FL, Los Angeles, CA 90019
- 8월 23일(금) 오후 7:00
- 8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7:00
- 8월 25일(주일) 오전 11:00

[인터뷰] 언약교회 장수영 목사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온 청년, 언약교회 담임이 되기까지

TV기독교일보 <늘 새롭게> 세 번째 게스트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깰는데 친구, 누나, 형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졸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마치 제가 그런 모습인 거 같은 거다. 그래서 저를 붙잡아 달라고 장로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

LA 동쪽 포모나에 위치한 언약교회, 포모나에 사는 이들은 언약교회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이다.

1978년 6월 25일 포모나 벨리 연합 감리교회 건물을 빌려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14대 담임목사인 엄희조 목사에 이르기까지 45년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이다. 그러다 교단의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반대로 지난해 12월 연합감리교회(UMC)에서 탈퇴하고 올해 1월 독립교회로 출발했다.

신앙의 자부심과 연륜 지닌 교회

이 교회에 담임으로 취임한 장수영 목사는 언약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득하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 있는 교회, 따뜻함이 묻어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아픔도 겪고 힘든 과정 속에서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신앙, 그것 한 가지 때문에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청빙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회를 주셨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기에 충분히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7월 21일 미주 기독교일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V 기독교일보’의 ‘늘 새롭게’ 코너에 세 번째 손님으로 출연한 장수영 목사의 답변에는 겸손이 묻어 있었다.



장수영 목사(언약교회 담임)는 은퇴 이후 계획에 대해, 교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 모습을 보는 주차요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기독교일보

중2병? 각 교회에서 악기 들고 모여 찬양팀 결성, 그때 은혜가 컸다 기도 제목은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 되는 것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를 앞 두고 주님 홀로 기도하게 했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들던 베드로의 모습과 동일시했다.

말레이시아, 미국 언약교회: 기도와 기도응답의 과정

그는 한국-말레이시아-미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말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살펴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처음 한국을 떠나 2009년경, 말레이시아 한인 연합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다. 사실은 그 전에 지인이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기회가 주어졌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교회적으로도 사역을 내려놔도 괜찮은 상황이 펼쳐졌고 미국에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 버지니아의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공

부할 수 있게 되었다.”

첫 해의 사역이었던 말레이시아에서 부목사로, 그리고 휴스턴, 한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마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공석이어서, 본의 아니게 사역을 맡아서 해야 했다며, 그 경험이 지금의 언약교회를 섬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

해외 사역을 하기 전 장수영 목사는 한국의 한 교회에서 12~13년을 섬겼다. 그때 카리스마틱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 밖에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회의 핵심을 배웠다.

젊은 목회자, 가슴 아픈 부분

TV기독교일보의 진행자인 박성호 목사(베이크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10여 년, 말레이시아에도 계시고 버지니아에서도 계시고 꽤 오래 사역을 하신 거 같은데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자, 장 목사는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입을 뗐다.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가장 어린 젊은 목회자 쪽에 계속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 이유는 제 밑의 세대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 아픈 부분이 조금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찬양팀 활동, “그 기억들이 너무 크다”

중고등학교 시절 각기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던 친구들과 찬양팀을 결성해 각자 교회에서 악기를 들고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찬양하고 공연했던 기억도 그의 마음속 한편을 크게 자리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찬양팀을 조직하고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있다. 그때 함께 한 친구들이 10여명이 되는데, 각기 다른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다. 서로 각 교회에 있던 악기들을 들고 와서, 교회를 돌아다니며 찬양했는데 그때 은혜가 너무 컸다.”

“고등학교 예배 끝나고 버스를 타고 악기를 싣고 교회를 찾다니는 거다.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 예배드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12시이 된다. 그

럼 집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이 찬양을 했다. 그 찬양팀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그때 기억들이 너무 크다. 찬양은 항상 제 주변에 있다. 저는 운영하는 일을 했는데 베이스 기타를 연습하면서 연주했다.”

기도제목: 예배 가운데 기쁨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한국에 사역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께 받았던 것 중의 하나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다. ‘예배 속에서 기쁘고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언약 교회가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과거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을까.”

“부흥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향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한 영혼이 회복된다면 그것으로서 교회 역할은 다하는 것 아닐까.”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은퇴 후 계획을 묻자, 그가 내놓은 대답은 ‘주차요원’이었다.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차요원을 해보고 싶다. 항상 예배당 안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보낼 때도 교회 안에서 떠나보내는데 그보다 앞서 그분들을 맞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교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비전이다. 그 모습 속에서 성도를 섬기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수고했다’, 그냥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초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存在的인 인물이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영입팀을 알립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센터메디컬그룹 무료 사진관 OPEN!

청춘 사진관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센터메디컬그룹이 오픈하는 무료 청춘사진관 안내

일시

< 9월 >



주소



예약전화

(888) - 847 - 3098

[월~금 오전 8시반~오후 5시반]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IOC, XY 선수 챙기려다 다른 여자 선수들 안전은...”

파리 올림픽이 개최식에서의 '기독교 조롱' 파문에 이어,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들의 여자 복싱 경기 출전으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압도적 경기력'으로 여자 66kg급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알제리 이마네 칼리프(26)는 한눈에 봐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한 신장과 골격을 갖고 여자 선수들과 경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복싱협회(IBA)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칼리프 선수와 대만 린 위팅 선수를 실격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의 올림픽 참가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올림픽 출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이들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가 아니며, XY 염색체를 갖고 있고 남성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IOC는 "파리 올림픽 복싱 경기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한다"며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선수들의 성별과 나이를 '여권'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또 "해당 규정으로 여러 국제 대회와 올림픽 예선 등 1,471명의 선수가 2천여 회 경기를 이미 치렀다. 두 선수는 IBA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의 희생자"라며 "작년 IBA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날 무렵, 이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갑자기 실격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 규정은 대회 진행 중에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규정 변경은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두 선수가 받는 학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파리 올림픽 여자복싱 66kg급 16강전에서 칼리프와 대결한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25)는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했다. 카리니는 주먹에 얼굴을 맞은 뒤 30초 만에 코너로 돌아가 헤드기어를 고쳐 썼으나, 잠시 후 기권을 선언했다.

헤드기어가 벗겨질 정도로 강한 펀치를 두 차례 허용한 뒤, 경기를 포기한 것이다. 카리니는 칼리프와의 악수도 거부하고 울면서 링을 떠났다. 당시 카리니는 "코에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카리니의 고국인 이탈리아는 체육부 장관과 총리까지 나서 '불공정 경쟁'과 '선수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기가 강행됐고, 결국 그의 펀치를 경험한 카리니가 기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8강전에서 헝가리 언너 루처 허모리 선수에게 5대 0 심판 전 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러자 헝가리복싱협회는 IOC에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대만 린위팅 선수와 16강 경기를 했던 우크라이나 투르디베코바도 판정패한 뒤 린위팅과 악수를 거부하고 링을 떠났다.

린위팅 선수와 경기했던 불가리아 스페틀라나 카메노바 스타타바 선수도 "이런 상황은 여자 복싱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 복싱협회도 "올림픽에선 모든 선수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토마스 바흐



관련 보도 화면. ©MBN 캡처

IO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올림픽에 출전할 권리를 가진 여성"이라며 "두 선수는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서 자랐고, 여권에도 여자로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오랫동안 여자로서 경쟁해 온 두 선수는 명확하게 여자 선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이 여성들을 여성으로, 인간으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 모든 여성은 여성 대회에 참가할 인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IBA는 XY 염색체 선수들에게 패한 상대 선수들에게 금메달 수준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마르 크렘레브 IBA 회장은 "카리니의 눈물을 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고 각 복싱 선수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왜 그들이 여자 복싱을 죽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선수만 링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교계 일각에서는 댓글과 SNS 등을 통해 XY 염색체 선수들을 옹호하고 있어 논란이다. 평소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강조해 오던 이들이, 파리 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선수들의 항변을 무시한 채 남성 염색체인 'XY' 선수들의 여자 경기 출전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기권한 선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펀치'라고 한 것은 그냥 그 선수의 주관적 의견, 기권의 이유일 뿐이지 않은가"라며 "여자끼리 경기에는 기권이 없나? 그걸 두고 '사람이 죽어야 멈추겠다' 같은 반응은 언론의 과도한 헤드라인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다른 인사도 "그의 염색체는 그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그들을 우리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며 선을 넘네 마네 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의 기준을 나머지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이 필요

하다"며 "그것이 99마리를 챙기는데 몰두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주님의 태도와 더 맞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또 "양궁 10점을 자주 쏘는 한국 선수와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1점을 쏜 선수를 같이 시험시키는 일은 타당하냐? 세계 육상에서 쟁쟁한 이름을 전하는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같이 시험시키는 일은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또 다른 약자, 상대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들을 보면, 국민들도 대부분 비판적이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인 조앤 K. 롤링은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이 미친 짓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성 선수가 인생이 바뀔 부상을 입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강혜진 기자

해리스 vs 트럼프 구도로 재편된 美 대선, 판세 요동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의 부상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논란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 이후,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했다. 상하원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일제히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고, 끊겼던 기부금도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반면 트럼

프 캠프는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 알려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해리스의 인종적 배경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성·인종 차별적 발언들로 인해 여성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캠프

의론조사원 존 맥러플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선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의 유명 선거전략가 칼 로브도 폭스뉴스 출연에서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 선택에서 실수하지 않는 한 모멘텀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에 대한 뚜렷한 공격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우리나라를 파

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측근들은 아직 해리스를 정의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판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CBS 뉴스와 유거브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 지지율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을 앞섰다. 다만, 더힐과 디시전데스크HQ가 집계한 99개 여론조사 평균에서는 트럼프가 47.8%로 해리스(47%)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

여전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해리스 부통령의 부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등 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거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두 후보의 정책 대결과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윤식 기자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꿈꾸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미주조선일보LA 창간 5주년 기념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Live in LA

NOW
TICKET
OPEN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창간 5주년 기념
ChosunDaily LA
미주조선일보 LA

\$50~\$350



chosunticket.com



axs.com

\$50 | \$65 | \$70 | \$75 | \$85 | \$90 | \$100 | \$110 | \$115 | \$120 | \$125 | \$150 | \$175 | \$180 | \$200 | \$225 | \$250 | \$275 | \$300 | \$350

LIVE CONCERT 10월 13일 일요일 6 PM **미스트롯 3 LA 공연 예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삼호관광 LA점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한남체인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태양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한남체인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윌셔점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장석훈의 천종산삼-부에나파크점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올림픽점	(213) 388-1234	2717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도르가 서점-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강훈 기자의 교회 탐방

주님을 섬기는 교회 Sierra Vista Servants of Christ

애리조나 남쪽 시에라 비스타 영어권 담임 목사 모집 중

애리조나주 남쪽에 후아추카산 아래 시에라 비스타라는 도시가 있다. 큰 부대 주변에 형성된 이 도시에는 꽤 많은 한인이 살고 있다.

이 도시에 <주님을 섬기는 교회(Sierra Vista Servants of Christ)>가 있는데 건강하고 알찬 교회다. 신실하고 헌신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이름처럼 주님을 섬기는 교회다.

1년 전에 담임 목사가 미군 군종목사로 입대하며 떠나 담임 목사가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 잘 훈련된 성도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긴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비도 장로(Jim Bideaux)는 신실한 신앙과 인격, 경륜을 지녔으며, 신학적 훈련을 받은 준비된 종이다. 그는 45년 동안 소령으로, 공무원, 계약직으로 군대에서 일했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Master of Divinity)을 공부했다. 서울



애리조나 주님을 섬기는 교회(Sierra Vista Servants of Christ) 주일 예배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주님을섬기는교회

이촌동의 충신교회(당시 담임 박종순 목사)에서 수년 간 영어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비도 장로의 나이와 건강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다.

비도 장로 외에도 귀한 안수 집사들(Fried

Sawyer, James McDowell, Keith Techmeir)이 교회를 든든히 지킨다. 찬양대로, 찬양 인도자로, 재정 담당자로, 음향 담당자로, 영상 담당자로, 그리고 반주자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아름답다.

남편들은 한인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문화가 이 교회 자랑이다. 세 사람의 시무(정애 McKenny, 향숙 Osborne, 양 Bideaux)권사들과, 은퇴하신 김우소(Ourso) 권사님을 위시해 권사님 6분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현장에 믿음의 향기를 발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다.

주일이 되면 성도 50여 명이 뜨겁고 진실하게 예배드린다. 찬양, 기도, 나눔, 말씀이 조화로운 예배에는 건강한 예배 신학이 담겨 있다. 곳곳에 숨은 섬김의 일꾼이 있다는 것이 이 교회의 큰 힘이다. 회장(신미옥 집사)과 부회장(강인애집사)를 위시한 여전도회 임원들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보수 복음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영어권 담임 목사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다. 한국어도 성경 공부나 설교와 기도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면 금상첨화다. 귀한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 부임하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강훈 기자

"교회가 소망입니다!" 충현선교교회 39주년 설립 부흥회

충현선교교회는 설립 39주년 맞아 "이 땅에 교회는 다르다!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주제로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 담임)를 초청해 8월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한다.

부흥회는 8월 9일(금) 저녁 7:30 '교회는 예배입니다!' (요 4:23-24), 8월 10일(토) 새벽 5:20 '교회는 그러합니다!' (창 6:5-6), 저녁 7:00 '교회는 아멘입니다!' (출 33:18-19), 8월 11일(주) 1, 2, 3부 '교회는 믿음입니다!' (요 6:1-15), 오후 2시 '교회는 거룩합니다!' (출 34:29-30)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5세인 손경일 목사는 얼바인의 베델교회에서 '예닮채플'을 이끌며 청년사역에 몸담았었고 2011년 산호세 새누리침례교회의 3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또한, 같은 기간 어린이와 유스 그룹을 위한 집회도 같은 주제로 열린다. 어린이 집



손경일 목사(산호세 새누리교회 담임)

회는 Jessica Choe 목사가 강사로 서며, 유스 집회는 James Kim 목사가 이끈다.

주디 한 기자

삼대동일신앙으로 명문가정을 이루는 비법

→1면 기사 <세대 통합 목회...>에 이어서 김경윤 총장은 조선대학교와 개혁신학 연구원을 졸업하고, 광신대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필리핀 선교사와 총회교육국장을 거쳐, 아세아연합신학대 법인 이사로서 활동해왔다.

이밖에 세미나와 별개로 김경윤 총장은

오는 21일(수) 오후 7시 30분에 충현선교교회에서, 25일(일) 오전 11시 45분에 주은혜교회에서 집회를 이끌 예정이다.

서인석 목사는 LA소망선교교회에서 오는 23일(금) 오후 7시, 24일(토) 오전 11시, 오후 7시, 25일(일) 오전 11시에 집회를 한다.

북부한인회 주최 <비상 대비 세미나> 개최

17일 (토) 오전 10:20~11:40
ANC 온누리교회에서
경찰서, 소방국 강사로

지난 6일 밤 베이커스필드 인근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어 약 1 시간 동안 남가주 곳곳에서 여진이 발생했다. 남가주는 지진을 비롯해, 산불, 가뭄, 폭염 등 각종 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6월 비영리단체 클레임가드(ClaimGuard.org)의 보고서에 LA가 전국에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카운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LA북부한인회(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North LA, KAFNLA)에서는 비상 대비 세미나가 8월 17일(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는 글렌데일 경찰서와 소방국이 강사로 참여해 집에서 직접 응급할 수 있는 응급 치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재난과 응급상황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일반적인가에 대

Emergency Preparedness Seminar
비상 대비 세미나

8월 17일 2024년 @ ANC 온누리교회
10:20 AM - 11:40 AM
강사: 글렌데일 경찰서 & 소방국

August 17, 2024 @ ANC 온누리교회
10:20 AM to 11:40 AM
Presenters from the Glendale Fire & Police Department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How to Prepare
응급 치료

Who to Call
지진

Emergency Types
산불

Learn how to prepare for certain emergencies by yourself, at home.

Know who to call for help in certain situations, and when.

Learn what types of emergencies or disasters are most common to California residents.

주최: LA 북부한인회
Supported by KAFNLA
818-921-0280

LA북부한인회 주최로 <비상 대비 세미나>가 8월 17일(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개최된다.

한 정보를 나누게 된다. 조셉 리 기자
주소: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문의: (LA북부한인회)818-921-0280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높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나이지리아 UMC 감독, 동성애 반대하며 탈퇴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회 총회 도중 아프리카 대의원 그룹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혼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의 결정을 비판했다. © 롭 렌프로

영국 전역에서 '무슬림과 이민 증오' 폭동과 폭력 사태가 확산되면서 성공회 대주교는 긴급하게 평화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 후 극우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건물을 파괴해 1백여명이 체포됐다. 폭력 사태는 혈, 리즈, 리버풀, 브리스톨, 맨체스터, 스토크온트렌트, 블랙풀, 하틀풀, 선덜랜드, 벨파스트에서 발생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 상징이나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했다. 그는 X를 통해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에 대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자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은 폭력과 증오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항상 혐오스럽다"면서 "무슬림과 망명 신청자 커뮤니티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그들에게 다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주교는 특히 사우스포트 칼버림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슬픔에 잠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해야 하며, 그들의 치유나 정의 추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으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상징이나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폭력

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모욕적인 일이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이를 행하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리버풀 성공회 주교인 존 페렘발라스는 타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진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고통, 슬픔,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커뮤니티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인간적이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버풀의 로마 가톨릭 보좌 주교인 토마스 네일론은 "영국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선덜랜드를 관할하는 더럼의 임시 주교인 사라 클라크는 "선덜랜드에서 그런 '끔찍한' 폭력 사건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X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끔찍한 폭력과 거리에서 증오와 위협을 조장하는 소수를 비난하며 모두 함께 뭉쳤다.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포트에 있는 세인트 필립 앤 세인트 폴 위드 웨슬리 교회의 마리엔 켄트 목사는 BBC에 "이 지역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英 '무슬림·이민 증오' 폭동 발생 교계, 평화 위한 긴급 호소

영국 전역에서 '무슬림과 이민 증오' 폭동과 폭력 사태가 확산되면서 성공회 대주교는 긴급하게 평화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 후 극우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건물을 파괴해 1백여명이 체포됐다. 폭력 사태는 혈, 리즈, 리버풀, 브리스톨, 맨체스터, 스토크온트렌트, 블랙풀, 하틀풀, 선덜랜드, 벨파스트에서 발생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 상징이나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했다. 그는 X를 통해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에 대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수자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은 폭력과 증오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항상 혐오스럽다"면서 "무슬림과 망명 신청자 커뮤니티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그들에게 다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주교는 특히 사우스포트 칼버림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슬픔에 잠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해야 하며, 그들의 치유나 정의 추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으로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상징이나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폭력

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모욕적인 일이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이를 행

하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리버풀 성공회 주교인 존 페렘발라스는 타지역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진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고통, 슬픔, 분노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커뮤니티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인간적이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버풀의 로마 가톨릭 보좌 주교인 토마스 네일론은 "영국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선덜랜드를 관할하는 더럼의 임시 주교인 사라 클라크는 "선덜랜드에서 그런 '끔찍한' 폭력 사건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X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끔찍한 폭력과 거리에서 증오와 위협을 조장하는 소수를 비난하며 모두 함께 뭉쳤다.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포트에 있는 세인트 필립 앤 세인트 폴 위드 웨슬리 교회의 마리엔 켄트 목사는 BBC에 "이 지역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우스포트는 정말 단결했고, 모든 친절한 행동은 우리가 이러한 증오, 폭력 행위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금) 오전 8시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청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부터 시작하며, 이만(2세)부터 시작하며, 선교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 생명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삼아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란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청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대)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주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중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신도교우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브라질 기독 선수들, IOC의 기독교 상징 금지 조치에 이의 제기



레이사 릴 선수. ©Olympics Skateboarding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연출해 논란이 되었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기독교 상징 사용을 금지 조치로 시행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7월 브라질 서퍼 조앙 치안카 선수는 IOC로부터 서핑보드에 그려진 구세주 그리스도 그림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치안카 선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그림은 그리스도가 종교적 인물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허가되지 않았다"라고 글을 게시했지만 곧 삭제됐다.

이같은 결정은 불공정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이종 기준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CT는 전했다.

이 매체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이 조롱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표명했는데, 이는 기독교적 이미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 시행과 대조된다"라며 "선수들에게 이러한 상징은 경기에서 영감과 격려의 원천이 되는데 금지조치는 특히 가혹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게 한다"라고 했다. 이어 "올림픽 현장 50조에는 '어떤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시위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엄격히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치안카 선수의 게시물은 재빨리 삭제되었지만, 그의 팔로워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

람들은 그의 신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브라질 국적 기독교인 선수가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항의를 한 사실이 보도됐다.

브라질 스케이팅부터 레이사 릴(Rayssa Leal)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했다. 릴 선수는 여성 스트리트 스케이팅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기 전 수화를 사용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녀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13세의 나이로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었고 올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프랑스에서 시합에 나서기 직전, 릴 선수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를 수화로 표현했다. 그녀의 수화를 본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소셜미디어에 번역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릴 선수는 동메달을 확정된 후 인터뷰에서 "아주 어렸을 때, 운동선수 스케이팅부터가 되는 것을 꿈꿨다"라며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메달을 땀다. 여기에 와서 매우 행복하다"라고 했다.

브라질인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며, 로마 가톨릭교가 가장 큰 교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인의 약 50-60%가 가톨릭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젊은 복음주의자를 포함한 상당한 개신교 인구도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9·11 테러 핵심 용의자들, 사형 대신 무기징역 수용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뒤흔든 테러 사건의 핵심 용의자들이 사형을 면하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은 31일, 9·11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59) 등 3명이 미 국방부와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조건으로 기소장에 명시된 2976명을 살해한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군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서한을 통해 테러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용의자들은 2003년에 체포되었으나,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못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여 년 동안 사전 심리 절차만 진행되어 왔다.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쿠웨이트에서 파키스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0년대 미국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말미인 1988년에 결성되었으며, 그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 5월 미군 특수 군사작전으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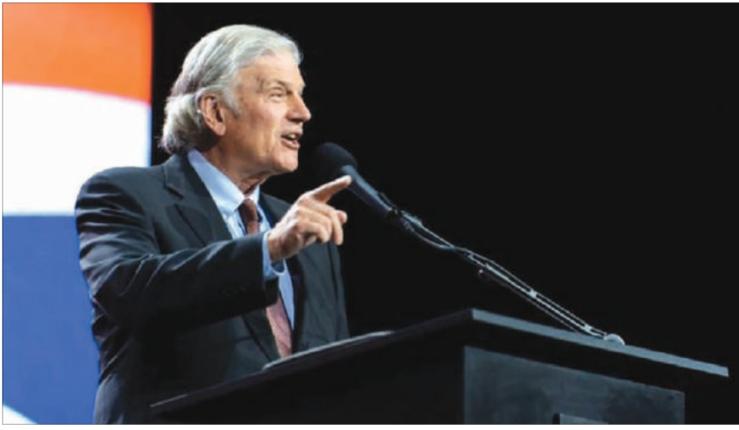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에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 ©wiki

살된 바 있다. 9·11 테러는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DC 미 국방부 청사에 여객기를 충돌시킨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297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3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들과 미국 정부의 유죄 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왓슨 대변인은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자신의 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식 기자

美 프랭클린 그래함 “기독교 민족주의, 분열적 용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BGEA

미국의 복음전도자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언론이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국가를 양극화하고 분열시키는 전술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와 인도주의 단체인 사마리아퍼스를 이끌고 있는 그래함 목사는 최근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보수 기독교인인 그래함 목사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에서 객관적인 저널리즘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에는 더 이상 저널리즘이 없다”며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이 용어는 최근 몇 년간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었으며,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보수주의자를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그는 “기독교적 민족주의”는 언론이 내놓은 동전이다. 그것은 미국을 분열시키고 양극화시킨다”며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 미국을 파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그들은 단일 세계제, 단일 세계정부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본다”며 “미국 달러가 세계의 통화 기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유럽, 러시아에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개방된 국경을 갖는 것이 그 일부”라고 했다.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의 마크 톨리 회장은 올해 초 쓴 사실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는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종종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기독교 형태를 추구하는 ‘포스트 리버럴’이라고 말했다. 한

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종교적 자유라는 전통적 미국 원칙을 지지하는 고전적인 리버럴이다.

두 집단 모두 ‘기독교적 미국’을 열망하지만,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법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국가의 인구 통계적·역사적·문화적 특징으로 본다”고 톨리는 말했다.

그래함 목사는 최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고, 최근 그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언급했다. 그래함 목사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를 복음주의의 기독교에 중요한 인물로 묘사했다.

그래함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한 데 역할을 한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집회에 전례 없이 등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래함 목사는 종교 자유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강력해졌다고 믿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서 그것(종교 자유)을 조금씩 잃고 있다. 매년 우리의 종교 자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종교 자유가) 세속주의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이 일상 생활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美 수영 금메달리스트 암스트롱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2024 프랑스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미국 올림픽 수영 대표팀 헌터 암스트롱 선수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분께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선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4x100m 자유형 계주 3차전에서 46.75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땀, 팀 중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다. 그는 또 미국이 4x100m 혼계영에서 은메달을 따는 데 일조했다. 그는 금메달을 확정된 직후 baptist press(Baptist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라며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수영이 나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전 수영 선수 출신인 암스트롱은 2021년 도쿄 하계 올림픽 4x100m 혼계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하이오 출신의 23세인 암스트롱 선수는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갓 퍼스트’(GOD FIRST)라는 글을 썼다. 그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보고 알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했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쟁에 참가할 때는 기도하고, 그게 잠깐 지속된다”라며 “교회 캠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필

요 없게 되면, 그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암스트롱 선수는 삶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6월에는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훈련을 받던 코치가 미시간으로 떠났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과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 감정적인 충격을 겪었다. 암스트롱 선수에게 그를 멘토링하기 위해 노력한 코치와 팀 동료들이 상담과 영적 지도를 구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그는 시련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선수는 동료 수영 선수인 카슨 포스터의 초대를 받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극복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며 “분명히 저 자신, 국가, 팀원들을 위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싶다. 하지만 제가 떠나서 메달이나 최고 기록을 하거나 얻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저 자신과 하나님을 잘 대표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날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 6월 스포츠 스펙트럼 팟캐스트에서 암스트롱 선수는 경기 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미경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말) 금(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가)기도회(마)미자(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말-금) 06:00AM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틀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가)미결) 오전 11:00 영아부(베)말(말)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7:30PM

Youth 금요일(말)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일기도회 7:30PM 새벽예배 화-토 5:30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말)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월요일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말)예배 오후 7:30 토 오전 6:00(200M)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화요일예배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 11:30 주일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말-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Ln,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걸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술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박편,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이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간증을 모집합니다

지난 6월 말 TV기독일보에서는 RV를 타고 미 전역의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미자립교회를 방문하며 음향 세팅 및 수리로 섬기고 있는 마원철 목사님(리퍼어 서번트, Repair Servant)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고 '늘 새롭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 언

약교회 장수영 목사 등을 초청해 '늘 새롭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TV기독일보에서 제작하는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 팀에서는 숨어 있는 간증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해석이 안돼', '하나님 빼면 할 얘기가 없어',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저희에게 연락

하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그 간증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 나누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저희 기독일보(213-739-0403, chdailya@gmail.com)로 해주시면 됩니다.

CMF선교회 8월 예배 및 엄영민 목사 파송



CMF 선교원에서 8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MF 선교회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8월 정기 예배 및 엄영민 목사 파송 예배 및 친교 모임을 가졌다.

지난 8월 3일(토) 오후5시 CMF 회관에서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된 정기 예배에서 김유진 선교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조봉기 선교사(캄보디아)가 설교했다.

조 선교사는 누가복음 18장9절-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눈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조 선교사의 설교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는 복음전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들의 다른 점은 한 사람에게 코람데오가 있고 다른 사람은 코람데오가 없습니다. 따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독백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길거리에서 크게 외치며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계신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품기전에 다윗이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기도하였더라면 그의 50에서 70대의 삶은 현저하게 바뀌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복을 받고 누렸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도 계급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소식을 종종 듣습

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고백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사도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종교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의로운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는 잘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매일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엄영민 목사(캄보디아 대학 총장)의 간증과 강순영 목사(JAMA전직 대표)의 파송 기도를 드리고 축사와 파송 패를 전달하고 채형병 목사 인도로 합심 기도를 한 후에 엄영민 목사의 축도로 CMF 선교원 8월 정기 예배 및 친교 모임 순서를 모두 마쳤다.

CMF 선교회 기사 제공

美 윈터잼 투어, 3만 5천여명 '예수 영접'

미국 최대 규모의 연례 기독교 음악 투어인 '윈터잼'(Winter Jam)을 통해 올해 전국에서 3만5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로스워크닷컴(구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제인 블랙 전도사는 올해 윈터잼과 함께 39개 도시를 투어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감동적인 변화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15달러로 다양한 밴드 공연을 제공한 이번 투어에는 크라우더(Crowder), 레크레(Lecrae), 케인(CAIN), 케티 니콜(Katy Nichole), 세븐스 데이 슬럼버(Seventh Day Slumber), 뉴스 송(Newsong)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블랙 전도사는 크로스워크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감동적인 변화와 일종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윈터잼 투어 동안 약 3만 4500명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블랙 전도사는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청년들이 주차장에서 밤새도록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미국 공연 전문 매거진 폴스타(Pollstar)에 따르면, 윈터잼의 관객 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



2024년 2월 1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윈터잼 투어 공연장이 청중들로 가득 찼다. ©윈터잼 투어 공식 페이스북

스보로에서 1만3156명,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1만2912명,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1만1715명,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1만1117명으로 집계되었다.

블랙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은 위태로움에 대한 눈가리개를 벗기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며 "그 결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아름답게 다가왔고, 전국에 대한 소망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대한 약속은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가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블랙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

다는 통계도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 하셨다"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복음을 진전시키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나는 희망을 느끼며 설렌다"고 했다.

블랙은 윈터잼의 목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격려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대해 열정적이라고 전하며,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친구들과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백종근 칼럼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진’ (3)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창로 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제 3 장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으로

하위럼 선교사 조선에 오다(1896)

조선에 파송된 개척선교사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굳은 의지를 확인한 해외 선교부에서는 조선에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을 약속하며 1895년 4월에 유진 벨 Eugene Bell 부부와 그 이듬해에는 하위럼 William B. Harrison 선교사를 연달아 파송했다.

1896년 1월 하위럼은 단신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증기선에 몸을 실었다. 그 당시 미국의 피시픽 메일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와 요코하마를 거쳐 홍콩을 잇는 정기선을 개설하고, 미국 대륙횡단 철도와 연계시키면서 상업적인 아시아 여행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용이해지던 시기였다.

샌프란시스코를 출항한 증기선이 긴 항해 끝에 태평양을 가로질

러 요코하마에 도착한 것은 거의 2 주일이 지나서였다. 곧바로 조선으로 가는 제물포 행 기선을 수소문했으나 연결되는 배편이 없어 며칠을 더 일본에서 머물러야 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공교롭게도 전신국의 통신장비에 고장이 생겨 전보를 칠 수가 없었다. 그는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도착 일정조차 알리지 못한 채 일단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야만 했다.

당시 요코하마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모노세키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가는 노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가사키를 거쳐서 서해를 끼고 북상해 제물포로 들어가는 두 노선이 있었다. 하위럼은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부산을 거쳐 육로로 가는 것보다 곧바로 제주해협을 통과해 제물포로 향해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배는 한라산이 보이는 제주도를 지나 목포외항에 잠시 정박한 뒤, 서해 연안을 따라 제물포로 가는 배였다. 이 배는 화물을 취급하는 우편선으로 여행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승객은 주로 조선으로 가는 일본인들이 대다수였다.

나가사키를 출항해 밤을 꼬박 새워 항해한 증기선은 다음 날 해가 중천에 오른 뒤에야 제물포 앞바다

에 닿을 내렸다. 그러나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도 커서 하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적당한 물때를 기다리며 4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지루하게 보내야 했다. 거의 저녁쯤 되어 밀물이 들어오자 그제야 작은 배로 갈아타고 포구로 들어갔다.

처음 보는 제물포는 요코하마나 나가사키에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보잘것없었으나 선착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제법 붐볐다. 개항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본식 건물이 제법 눈에 띄었다. 포구 앞바다에 떠 있는 기선의 뱃고동 소리에 놀란 갈매기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선착장 주변을 한가롭게 맴돌고 있었다.

코트의 단추를 채우고 장갑을 끼고 있어도 한기가 들 만큼 포구의 바닷바람은 몹시 쌀쌀했는데도 화물을 내리는 부두 노동자들의 옷차림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선착장 출구 주변에는 오랫동안 쉴지 않은 듯한 얼굴을 한 소년은 큰 소리로 호객하고 있었다. 부랴부랴 짐을 찾아 선착장을 빠져나올 때는 이미 짧은 겨울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난 뒤였다.

하위럼은 호객하는 소년의 뒤를 따라 일본인이 운영한다는 외국인 숙소를 찾았는데 입구에서부터 몸집이 왜소한 일본인 주인이 나와 한양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서툰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다. 인력거를 불러 타는 방법과 뱃길로 가는 방

법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해도 내일 아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하위럼은 인력거를 탈까도 생각했으나 짐이 많아, 일단 마포까지 간다는 뱃길을 택하기로 하고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제물포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뱃길은 조선 시대 초기부터 삼남 지방에서 세곡이 올라오는 물류의 동로로 선박 출입을 관리하는 관리가 양화진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866년 병인양요 丙寅洋擾 당시 불란서 군함이 한강을 따라 침입한 이후로는 관리들 대신에 병사들로 교체했다가 아예 어영청의 군사 훈련장까지도 이 근처로 옮기면서 군대를 주둔시켰다. 갑오개혁 이후로는 장어영壯禦營 소관의 관선이 제물포에서 양화진과 마포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제물포에서 하룻밤을 지낸 하위럼은 이른날 아침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를 출발해 차가운 강바람을 내내 거스르며 양화진을 지나 마포 나루에 도착한 때는 정오가 한참 지나서였다. 나루터에 내려서 바라본 눈 덮인 한강 변의 풍경은 스산한 겨울의 모습이었으나 더 할 수 없이 평화스러웠다. 먼저 하위럼은 배에서 짐을 끌어 내리고 도성으로 데려다줄 짐꾼과 안내인을 서둘러 찾아야 했다.

인력거꾼을 구한 하위럼은 짐들을 두 대에 나눠 싣고 그들을 재

촉해 도성으로 향했다. 나루터에서 좁은 길을 따라 도성으로 이동하는 연도沿道에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띄엄띄엄 보이는 초가집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살얼음이 깔려있어 미끄러웠다. 몇 개의 언덕을 뒤로하면서 3마일 정도를 지나 제법 큰길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통행이 잦아지고 있었다. 도성이 가까워지자 큰길 양편으로는 규모가 작은 가게들이 연이어 저저거거를 이루고 있었고 가게의 담벼락이나 기둥에 걸여놓은 상품이라곤 수공예품과 조악한 면직물들이 전부였다. 하위럼의 인력거가 가게 앞을 지날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진 인력거꾼의 어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서소문?)을 지나 선교부에 이른 것은 이미 짧은 해가 지고 어스름이 밀려드는 무렵이었다. 서소문에 머물던 내한 선교사들은 엄동설한의 추위를 뚫고 혼자서 선교부를 찾아온 하위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뜨거운 환영으로 그를 맞았다.

짐을 떠나 1개월이 넘는 여행 끝에 서소문에 도착한 그 날은 1896년 2월 19일이었다. 긴 여행의 여독도 있었지만, 조선까지 오는 긴 여정을 혼자 하며 긴장한 탓에 심신은 이미 녹초가 되어있었다.

진유철 칼럼

화평하게 하는 자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입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peacemakers”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개 짖는 시냇물이 흐르는 조용한 곳

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화를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렬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화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스라엘은 ‘샬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여론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깊고 큰 갈등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노벨평화상을 주어도 사람들 마

음속에 있는 갈등과 분노와 미움은 더 커지고 잔인해져 갑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자, 화평하자고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시위나 테러도 더 과격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과의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다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정부 때문에, 주변 나라들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7)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화평을 원하는데도, 육체와 세상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19-20)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므로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아직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이기심과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내 입과 혀가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Not I But Christ!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4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others.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 및 고령자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터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

민중기 칼럼

병촌교회와 66인 순교기념관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결국 토요일 저녁 서울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토요일에 청년 시절부터 저를 지도하신 박철수 목사님을 방문하고 답소했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화순 근처의 추월산과 죽녹원을 방문했습니다. 결국 이별을 미적거리다가 서울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은 밤 겨우 논산까지 올라와 다시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7월 28일 주일 새벽, 주일예배를 드릴 장소를 정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

니다. 병촌성결교회! 66명의 순교자의 터전을 꼭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곳에는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영 목사님 부부가 목회하시는 교회는 마침 늦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눅 11:11-19)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목사님과 교회가 우리 부부에게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다. 성도님은 방문객인 저희를 잔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과 관대함이 깃든 점심을 즐겼습니다.

저희 같은 방문객이 많을 터인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일일이 소개하셨습니다. 황송하게도 우리 부부 두 사람이 앉아 교회의 영상기록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간증하신 고령의 노미종 권사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산다고 해서 처음에는 공산당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시간이 지나며, 공산당은 “기독교인이 사상이 다르므로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잘 가꾸어진 “66인 순

교기념관”에 이르러 목사님은 구석, 구석에 전시된 사진과 의미 있는 조각물, 기념비, 조명과 공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련되게 꾸어진 카페에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평화스럽게 이야기하고 휴식하였습니다.

6.25동란 발발 후 3개월간을 접거했던 공산군이 후퇴할 때, 그들은 9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신도 16세대 66명을 잡아다가 고문과 구타를 가했습니다. 이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당시 31세의 여집사 정수일은 시부모, 시동생, 아들, 딸, 조카 등 일가족 10명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산군은 패전하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은 성도들을 죽창, 몽치와 농기구로 때리고 4개의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체포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김주옥 장로(당시 집사)는 모친, 아내, 12세 딸과 둘째 아들을 잃었고, 16세, 8세, 6세 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당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5가정을 비롯하여 교인 총 74명 중 66명을 잃었으니, 교회가 받은 핍박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순교 사건은 체포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김주옥 장로와 잡히기 전 어린 동생을 업고 도망친 김주옥 장로님의 딸 김명호님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살아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산당 앞잡이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우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당사자의 가족을 교회의 성도들이 용서하고 함께 교회를 이룬 것은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거룩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영 목사님의 자상한 설명을 들으면서, 선배들이 겪은 여제의 고난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1933년 병촌교회의 전신이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교단과 함께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과 함께 다시 시작된 병촌교회가 5년 만인 1950년 9월, 성도의 약 90%가 순교 당하는 격동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66개의 돌조각으로 세워진 “66인 순교기념탑”을 떠났습니다.

신성욱 칼럼

엄마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2024 파리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감동적인 화제의 인물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 결승 라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선두를 달리던 케냐 선수 아벨 무타이가 결승점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멈췄다.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착각한 것이다. 2위로 뒤따르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선수는 상황을 알아챘다. 그래서 무타이에게 더 달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무타이는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이에 페르난데스는 그를 뒤에서 결승선까지 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영문도 모르던 무타이가 우승할 수 있었다. 그에게 한 리포터가 물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페르난데스는 “내 꿈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밀어주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 삶을 언젠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절호의 우승 기회를 가버린 여긴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리포터는 “왜 케냐 선수가 승리하게 해주셨죠?”라고 다시 물었다. 페르난데스가 답했다. “내가 그를 이기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는 원래 이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 경주는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포터는 집요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길 수 있었잖아요?” 페르난데스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기면 뭐가 좋아지나요? 우승 메달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와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놀라운 답이 아닐 수 없다. 페르난데스를 어릴 때부터 키워온 엄마가 어떤 분이었기에 우승을 눈앞에 둔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 그녀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남의 명예나 영광을 약은 수로 찬탄하지 말라고 가르쳤을 것이다. 오늘 나나 우리 대다수의 아빠나 엄마였다면 어땠을까? “아 이놈아, 그런 기회를 양

보하다니? 승부의 세계에선 양보가 없는 거야 바보야!”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바로 페르난데스에게 주입시킨 엄마의 가치관이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열한 속임수를 쓴 인물로 꼽히는 인물의 얘기가 있다. 소련의 ‘보리스 오니센코’(Boris Onishchenko)라는 선수이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단체전 은메달,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세계선수권에서도 10개가 넘는 메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선수였다. 전성기도 지나가고, 힘도 떨어져 가는 39세의 나이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했다.

에페 경기가 있던 날, 영국 선수와 경기를 가졌는데, 영국 선수가 느끼기에 칼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두 번째 영국 선수도 경기중에 동일한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심판에게 항의해서 마침내 심판진이 오니센코 선수의 에페 칼을 조사하게 된다. 심판진이 그의 칼을 확인해 보니, 가드의 커버 속에 교묘하게 회로를 설치했고, 손잡이에 스위치를 설치해 힘을 주면 유효면에 전류가 흘러 불이 들어오는 장치가 달려있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경기에서 쫓겨나게 된

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소련팀 선수촌에서도 난리가 났다. 올림픽이 끝나고 귀국 후 장교로 복무하던 군대에서도 강제 전역 당하고,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브레즈네프 서기장에게 불려가 엄청난 질책을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내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도 모두 잃게 된다. 속여서라도 금메달을 받아야겠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앞서 소개한 페르난데스 선수의 양보와 보리스 오니센코 선수의 속임수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차이’이다. 어린 시절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결정은 부모가 만들어준다. 장차 우리 앞에 떳떳하지 않은 행동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페르난데스가 던진 질문을 하면서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 말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나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 부모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때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면 좋겠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넘김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Seoul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고난 중에 미래의 설계자를 바라보라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안 되면 버림받아서?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미래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먼저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학은 내일을 염려하는 학문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다.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기본적 믿음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장사꾼들을 가리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고 책망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전문 미래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저자 최윤식 목사의 책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를 선물받았을 때, 그가 세계적 미래학 거장들에게 사사를 받고, 여러 가지 미래 위기를 예측하여 크게 주목받았으며,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라는 사실에도 큰 감흥이 없었다. 오히려 옥한흠 목사의 지도 아래 수년간 부목사로 섬겼고 예수나무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미래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질 것을 확고히 믿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미래학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다.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아시아 대표 미래학자 전하는 인생 고난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제시한다. 개인이 겪은 세 번의 파산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명확해진 것은 아무리 전문 미래학자라 해도 자기 미래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래학이라는 것은 짐승처럼 미래를 신비적으로 떠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정보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그래서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측을 주님으로부터 요청받았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곧이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눅 14:28).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눅 14:31).

그렇다. 계산과 헤아림, 그것이 바로 미래 예측이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숫자와 상황만을 두고 계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좇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와 능력과 지혜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저자 최윤식 목사가 고통을 통과하며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만날 때,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고난을 만나 고통받을 때, 저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면한다.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말씀으로 만나야 한다고 권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중에도(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안에서 힘을 누리라고 호소한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가 돌보실 것이며, 고난 중에도 그 돌보심의 세심한 손길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안은 직접 경험한 고난 중에 배우게 하신 교훈이다. 사람의 예측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은 종종 허락하신다. 때로 우리의 실수나 실패, 심지어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될 때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저자는 극심한 고난으로 삶이 무너졌을 때, 더 큰 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 더욱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예측한 방법, 계획한 시



저자 최윤식 박사. ©크투 DB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미래가 저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고통받는 환경은 모두 치유와 회복으로 끝이나라면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신다. 경제적 타격으로 가정의 무너졌을 때 적극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시지만, 때론 파산 신청을 하고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일하도록 하실 때도 있다. 저자도 그 점을 명확히 한다. 잘

풀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그들의 연수와 그 연수의 자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좇는 삶의 영원한 미래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다.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뿐이다. 고난은 그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단지 몇 가지 미래의 지표가 아니라 미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의 손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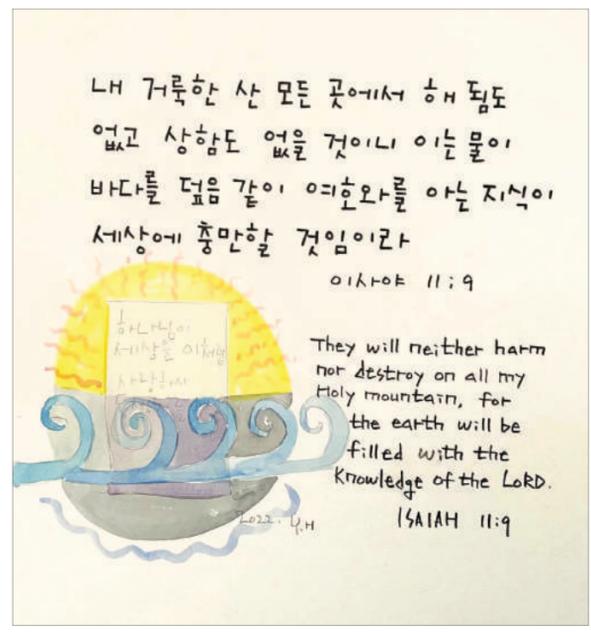
최윤식 | 생명의말씀사 | 264쪽 | 19,000원

‘하나님은 없다’를 선택할 것인가? vs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없다’고 믿으면 앞으로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견뎌 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 낼 수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에 대한 올바른 방향도 찾아야 한다. 이 책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저자의 여정이 목격한 통찰과 함께 고스란히 담겨있다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龍光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기독일보 |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chdailyreporter@gmail.co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파리 올림픽의 PC주의 (1)

파리 올림픽 'PC 범벅 개막식' 으로 프랑스가 노린 것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하계 올림픽.

보불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모두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크게 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독일 파시즘과 소련 공산주의를 견제할 주요 국가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아 승전국 위치도 확보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끼어들 수 있었지만, 승전국답지 않은 승전국이라는 애매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하에서 전 세계에 확보하고 있던 식민지도 거의 대부분 상실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과거 유럽 전역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를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한 열강으로서의 추억과 문화예술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국가의 위상을 지키고 나라 경제를 꾸려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프랑스가 항공, 에너지, IT 산업, 농업 부문에서 상당한 강국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명품 사치재와 관광 역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전 세계 1위 관광국가로서 매년 8,000만 명 이상이 이 나라를 방문해 관광 비용을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좋은 국가 이미지가 곧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조건이 된다.

패션과 예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프랑스의 이미지는 주로 19세기 후반에 형성됐다. 보불전쟁 이후 유럽, 특히 프랑스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큰 전쟁이 없는 '벨 에포크(Belle Époque·아름다운 시절)'가 펼쳐졌다. 이 시기 프랑스는 문화와 미술 부문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는 프랑스 사회가 유럽 전역에서 그나마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관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인들은 이 벨 에포크 시기의 프랑스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벨 에포크 시기 이후의 프랑스는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거의 100년간 제1·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규모 전쟁과 핵전쟁 위험, 그리고 식민제국 해체를 겪으며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계속 위축되는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벨 에포크 시기 제국주의 열강이자 문화예술 강국으로서 프랑스의 이미지는 프랑스인들의 국가적 자존심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실제 산업 영역에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데카당스(Decadence)란 벨 에포크 시기 프랑스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확인됐던 문화적 현상이다. 전통적 윤리식을 과격하게 무너뜨리는 퇴폐적 예술 조류를 일컫는 말이다. 데카당스는 당시 프랑스 예술의 전 세계적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는 미국과 일본 같은 현 대중문화 강국을 의식한 듯,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문화예술 선도국 위치를 확인시키려 새로운 형태의 데카당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형적 다양성 이념에 경도된 PC주의이다.

프랑스인들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다양성 이념 수호에 무슨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 개막식이나 경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실 프랑스는 톨레랑스의 나라라는 이미지와 달리, 유럽 전체로 보더라도 인종차별 지수가 생각보다 낮지 않은 국가이다(독일, 네덜란드, 영국보다 프랑스의 인종차별 지수가 더 높다).

파리 올림픽이 PC주의를 질게 반영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프랑스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예술 선도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 패션 사치재와 관광 산업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경제적 의도일 것이다. 이는 쇠락해가는 국가 역량과 이미지를 제고해 보려는 무리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문제 장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PC주의를 질게 반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프랑스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예술 선도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서 패션 사치재와 관광 산업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경제적 의도이다. 이는 쇠락해가는 국가 역량과 이미지를 제고해 보려는 무리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프랑스 사회 데카당스 과시 벨 에포크 시절 강한 향수와 문화예술 선도 이미지 강화 경제적 이익 얻겠다 무리수

◆파리 올림픽: 과도한 PC주의로 뒤틀린 개막식과 경기 운영

제33회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이 7월 26일 개막했다. 프랑스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개최된 하계 올림픽으로,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 행사라 볼 수 있다.

또 이번 하계 올림픽은 2021년 개최된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된 가운데,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올림픽은 개막식부터 행사 진행까지, 여러 구석에서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질게 반영되어 있다.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 이교적이고 젠더주의적 방식으로 뒤틀린 '최후의 만찬' 등 다양성 이념을 명분 삼아 유럽 구체제 전통 및 기독교 문화 전통에 대한 조롱과 악의가 뒤섞인 퍼포먼스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 전 세계 관람객 및 시청자들은 불편하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 문화예술 선도국가를 자처하던 프랑스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렇게 유치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 한심한 수준의 예술성에 더해, 전 세계인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동조하는 PC주의 다양성 이념을 강요하는 억지스러운 윤리적 우월감 역시 불쾌하다는 감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행사 진행상으로도 원칙 없는 모습이 여

러 곳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복싱 선수가 여성부 경기에 대거 출전하는 촌극이 눈길을 끈다. 이에 여성 선수들이 제대로 된 경기를 치뤄보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프랑스 올림픽이 유독 PC주의로 인해 기괴한 예술성과 경기운영 양태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리우와 도쿄 올림픽 이후 PC주의가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진 것 때문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파리 올림픽이 유독 PC주의로 뒤범벅된 모습을 보이는 데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프랑스 근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이 나라가 진정으로 강대국다운 면모를 보인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 17세기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당시 프랑스는 분명 유럽의 판도를 좌우하는 서유럽 최강대국이었다. 프랑스가 이런 국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골수까지 착취한 앙시앵 레짐의 기형적 경제 구조에다 천혜의 자연조건에 힘입은 유럽 농업의 절대 강자라는 조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절대 왕정 쇠퇴기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좋은 말로도 강자라고 불리기 어려운 국가였다. 나폴레옹이 잠시 서유럽 상당 지역을 점령하는 위업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원정에서 처참한 실패를 맞이한 후 프랑스가 유럽의 패권을 좌우하는 일은 없었다.

◆프랑스 문화사: 약화되는 국력 때문에 더 강조되는 문화예술 선도국 이미지

18-19세기 프랑스는 유럽 바깥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현지인들을 착취하며 위세를 부렸지만, 유럽 본토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위세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지구촌교회 “차츰 안정… 담임 직무대행 손정훈 목사”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구촌교회 미래준비위원회〉 출범 예정

지구촌교회가 “최성은 담임목사 사임 이후 내부적인 상황들을 수습하며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사역조정실장인 손정훈 목사가 “4대 담임목사 청빙까지 당분간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회 측에 따르면 국내외 단기 선교를 통해 해외선교 20개국 58개 팀 750여 명, 국내 선교 43개 지역 73개 교회 약 4,000명의 성도가 참여해 예정된 사역들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며 “지난 3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디딤돌로 하여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위한 미래비전 구상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를 위해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구촌교회 미래준비위원회〉 출범을 예

고하며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며 “이 위원회는 새로운 30년을 위한 준비에 걸맞게 성도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3개의 분과로 조직될 계획”이라고 했다.

3개 분과는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미래 기준을 마련하고 청빙 과정 전반을 기획할” 청빙준비분과 △“더욱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대안을 마련할” 시스템개선분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건축비전분과다.

교회 측은 이를 통해 “지구촌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성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풀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프로젝트인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9월 정기 제직회에서 성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범위와 방향성을 재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채플 증축 공사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왼쪽)과 수지채플 ©지구촌교회

로 시작됐다. 담임 직무대행을 맡은 손정훈 목사는 “지금은 말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모든 부교역자들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과 목양에 전심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며 “무엇보다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구촌교회 미래 준비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우간다 무슬림, 기독교로 개종한 딸 끊는 물로 학대

우간다 동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녀가 아버지에게 다리미와 끓는 물로 학대를 당한 후 버려졌으나, 기독교인에 의해 구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우간다 부타레자 지구 남팔로고마에 사는 나이시케 말리아티(19)는 지난달 15일 음발레 지구의 부소바 구역 루왕골리에서 할머니를 방문하는 동안 친구와 함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

말리아티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주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며 “집으로 돌아와서 여동생에게 내가 이슬람교를 떠났다고 말했고, 여동생은 기독교 개종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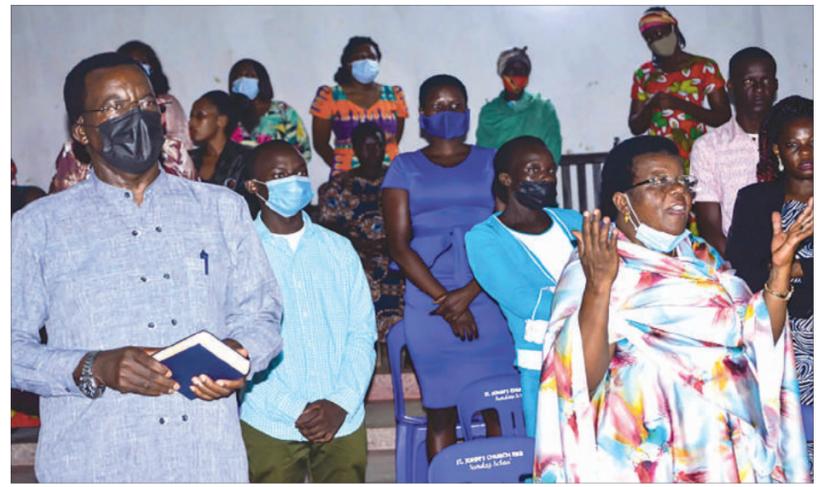
음발레의 누르 이슬람 전문학교 학생인 말리아티는 다음 주일인 21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귀가 후 아버지 압둘라힘 쿠토시(44)와 삼촌들이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던 것을 회상했다.

말리아티는 “그들은 나를 묶어놓고 때렸

으며, 결국 아빠는 뜨거운 다리미와 끓는 물을 집어 들고 나를 학대했다. 그리고는 내가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라고 크게 소리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대가로 화상을 입었다. 아빠는 내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격렬하게 소리쳤다”며 “그는 심지어 알라조차 나에게 화가 났다고 계속 말했고, 몸 속에서 통증은 계속됐다”고 했다.

말리아티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친척들은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워 나마탈라 강 근처에 버려 줬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기독교인 니콜라스 은도볼리가 그녀를 발견했다.

은도볼리는 모닝스타뉴스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봤다”며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멈추기로 결심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3만 우간다 실링(약 1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가 응급 치료를 받도록 입원시



우간다 엔테베에 위치한 성요한교회(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성요한교회 공식 홈페이지

켰다고 밝혔다. 지역 기독교인들은 쿠토시가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것을 일제히 비난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소식통이 보도한 우간다의 기독교인 박해 사건 중 가장 최근 사례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시민들이 자

신의 신앙을 전파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할 권리가 포함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무슬림은 우간다 인구의 12% 이하이며, 주로 동부에 집중돼 있다.

김유진 기자

美 올림픽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인스타에 당당히 신앙고백

올해 16세로 미국 올림픽 대표팀 최연소 선수인 여자 기계체조의 헤즐리 리베라가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결선

에서 미국이 171.296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미국의 ‘체조 전설’이라 불리는 시몬 바일스(Simone Biles)와 제이드 캐리(Jade Carey), 조던 칠레스(Jordan Chiles), 수니 리(Sunisa Lee), 헤즐리 리베라(Hezly Rivera)가 우승을 합작했다.

1992년 이후 모든 종목들 통틀어 올림픽

대표팀 최연소 선수라는 역사를 쓴 리베라는 경기 후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당당히 밝혔다.

리베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 팀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다”면서, 이사가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을 공유했다.

그의 어머니 하이디 루이즈(Heidy Ruiz)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에게 매트에 오르기 전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 줬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메달을 획득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최연소 선수로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환호했다.

강혜진 기자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FOR MORE INFO



SCAN ME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Bangkok KOK 2024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기드온동작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